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작품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이영미[†] · 이주연
건양대학교 미용학과

A Study on Art Make-up Illustration Applying Henri Matisse's Works

Young-Mi Lee[†] · Ju-Yeon Lee

Dept. of Beauty, Konyang University
(2006. 9. 12. 접수/2006. 10. 25. 채택)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the form of color expression by studying Henri Matisse's works. Also,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took art make-up illustration as an original area by incorporating the artistic value of Henri Matisse's works on art make-up illustration.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by analyzing the paintings of Matisse focusing on previous theses and related books. Four pieces were produced from the motive earned from the figurative features and colo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Since Henri Matisse's works used strong original colors such as R/V, G/V, B/V, and Y/V, it was possible to create powerful art make-up illustration through the contrast of complementary colors. 2) Creative and artistic illustration could be produced by developing and reorganizing designs with the utilization of his works.

Key words: Henri matisse(앙리 마티스), Art make-up(아트 메이크업), Illustration(일러스트레이션)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던 메이크업은 고대 원시사회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능, 개성추구, 사회적 표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어왔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신체에 대한 표현 예술로서 메이크업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실험의지가 돋보이는 아트 메이크업이 더욱 더 발달하였다.

아트 메이크업(Art Make-up)은 현대적이고 예술적인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었고, 점점 더 고급화·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기법은 날로 발전하고 새로워지고 있다.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개발의 한 방법으로서 조형예술의 한 분야인 회화를 모티브로 도입하여 좀 더 개성 있고, 창조적인 아트 메이크업을 디자인 하도록 하였다.

선행 연구된 김예성의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연구; 표현주의 회화를 중심으로’, 김남희의 ‘피카소의 색채를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에서 회화의 모티브를 도입하여 개성 있고 창의적인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을 연구하였다. 이는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이 예술 분야로서 20세기 미술의 흐름과도 밀접한

[†]Corresponding author: Young-Mi Lee
E-mail: bluebell1@hanmail.net

연관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세기 색채 표현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를 들 수 있으며 그에 의해 미술사는 ‘색채의 해방’이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는 1905년에 태동한 야수주의 대표적인 작가이고, 야수주의는 20세기 아방가르드의 시작이며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운동이었다. 1905년부터 1908년에 색채를 주축으로 일어난 이 운동은 광학적 추구의 특징을 가지는 색채표현의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진 단계이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세기 색채 표현의 대표적인 마티스의 회화 작품을 연구하여 조형적 특징과 색채표현의 형식을 규명하고, 이것의 예술적 가치를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접목시켜 주변 예술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그 의의를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마티스의 작품을 조형적 특성과 색채 표현의 형식을 분석하여 이를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의 모티브로 응용·도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배경은 선행 논문, 문헌 자료 및 관련 서적들을 중심으로 마티스 회화의 조형적 특징, 색채표현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마티스가 많이 사용하였던 조형적 특성과 색채를 모티브로 하여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에 접목시켜 4점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지류(紙類)에 아크릴 물감, 마카펜, 색연필, 새도우 등 여러 미술 재료들을 이용하여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시행하며 그 결과물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의 작품세계

마티스는 1905년에 태동한 야수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야수주의(Fauvism)는 색채를 통한 감성의 해방과 주관적인 대상의 처리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마티스는 논리적이고 지적인 동시에 현대미술에 있어 여러 가능성을 제시한 작가였다. 특히 1930년에

서 1954년 작품에서는 색채 표현에 조형가치를 준 시기였으며 색, 형, 선을 통합시켜 조형적 작품으로서 새로운 회화를 창조해냈던 시기였다. 이는 20세기 회화의 근원을 이룬 한 부분이며 이전의 고전적 색채의 표현을 벗어나 형태의 단순화와 색채의 강렬함이 나타났던 시기로 현대의 사회 현상을 연구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것이다.

2. 마티스 회화의 조형적 특성

작가는 개개의 작품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는 동시에 작가의 전체적인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작가는 자신의 전반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모티브와 기법을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의 작품은 미학적인 사고의 표현이며 다양한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양식은 첫째,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 가는가 하는 측면을 갖는데 이는 소재의 영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둘째, 작가가 이미지리(Imagery)를 형성하기 위하여 색채, 선, 공간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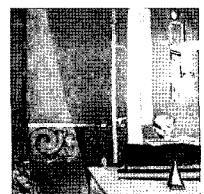
따라서 소재, 색채, 선, 공간의 네가지의 요소로 마티스 회화의 조형적인 특성을 살펴봄으로서, 그의 공간구조 연구에 기초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소재

마티스 회화의 소재는 작품¹⁾의 외관에 근거하여 실생활에서 묘사된 장면과 상상된 듯이 보이는 장면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생의 기쁨」 <그림 1>(1906)은 상상이 가미된 시적인 고안이라 할 수 있는 반면 「피아노 레슨」 <그림 2>(1916)는 실제의 장면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초기작 중에서 상상된 이미지의 주요 작품으로는 「생의 기쁨」, 「춤」 <그림 3>



<그림 1> 생의 기쁨
앙리마티스, p.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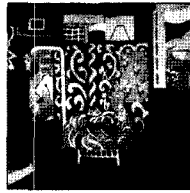
<그림 2> 피아노 레슨
앙리마티스, p.106



<그림 3> 춤
앙리마티스, p.53



<그림 4> 음악 레슨
앙리마티스, p.138



<그림 5> 가지가 있는 실내
앙리마티스, p.105



<그림 6> 금붕어와 조각
앙리마티스, p.102

(1910)등이 있었다.

마티스의 작품은 근본적으로 장르별 소재에 해당되며, 앵티미스트(Intimist)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비유적인 표현이 방의 내부나 가정적인 장면들과 연관되어 있었고, 이는 「피아노 레슨」과 「음악 레슨」 <그림 4>(1917)에서 더욱 뚜렷하였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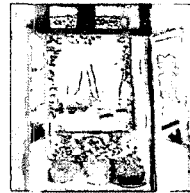
마티스의 예술은 근본적으로 응축된 표현(Understatement)의 조류에 포함되는 한편 보는 이의 시각이 감각적인 조화에 의해 압도되었고, 때로는 표면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적인 호소의 이면에는 엄격한 지성주의(Intellectualism)가 있음을 간과할 수가 없었다.

2) 색채

마티스는 20세기 색채 화가의 한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드강(Leon Degand)은 색채의 자율적인 측면에서 마티스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있었다³⁾. 마티스 회화의 고찰을 통해서 그의 색채를 네 가지 기능으로 분리시켰다. 즉 오브제 묘사, 광선 묘사 및 표현적인 기능, 오브제 공간, 광선을 묘사할 때 색채는 동시적으로 그 효과를 내며 표현적인 기능에 추종되어지는 않았다.

마티스는 주로 색채로서 사물을 묘사하였고, 그 예로 「가지가 있는 실내」 <그림 5>에서 가지는 영성하게 묘사하였으나 색채에 의해서 느껴지게 하였다. 그는 오브제의 회화적인 기호나 동등가⁴⁾로 대체시키고자 할 때 축약시킴으로서 오브제와 그에 대한 인식을 연결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성격은 그의 초기작에서 후기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었다.

그의 색채의 두 번째 기능은 광선의 묘사이었다. 야수파시기에 이르러 밝은 색면으로 비실제적인 광선을 암시해 주었고, 그 이후의 작품에서 광선의 묘사는 더 현저해져 1905년경부터 색채들의 관계에 의



<그림 7> 열린 창⁵⁾
서양 현대 미술의 기원, p.147



<그림 8> 마티스 부인
앙리마티스, p.57



<그림 9> 붉은 화실
앙리마티스, p.76



<그림 10> 푸른 창문
앙리마티스, p.91



<그림 11> 붉은색의 조화⁶⁾
세기의 우정과 경쟁: 마티스와 피카소, p.83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금붕어와 조각」 <그림 6>(1911)에서 잘 묘사되었다. 또한 실제적인 현존 그 자체로 광선을 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후에 추상적이고 새로운 방식과 전통적인 광선 묘사의 방식을 다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열린 창」 <그림 7>(1905)에서 잘 묘사되었다.

1910년경에 이르러 공간의 부분적인 생략을 사용하였고, 색채를 통한 공간의 묘사는 마티스의 공간구성에 중요한 방법이었다. 「마티스 부인」 <그림 8>(1905)에서는 보색과 그와 유사한 색조의 병치가 공간을 평면화 시키고 있었다.

마티스 작품에서는 오브제가 실제의 색과는 다르게 채색된 경우가 많았고, 그 예는 「붉은 화실」 <그림 9>(1911)와 「푸른 창문」 <그림 10>(1913)을 들 수 있었다. 색채는 사물묘사와 광선묘사의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공간자체를 묘사하는 구성력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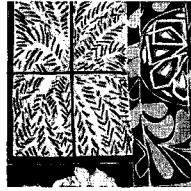
마티스 작품에 있어서 색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표현적인 기능으로 ‘색채의 창의성’과 ‘부조화에 기초한 조화’의 구성이었다. ‘색채의 창의성’의 예는 「붉은 색의 조화」 <그림 11>(1908), 「푸른 창문」, 「붉은 화실」 등으로, 이는 단일색에 의해 형태들이 연결되었으며 그 색조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었다. ‘부조화에 기초한 조화’는 ‘색채의 창의성’보다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보색의 병치를 이루어 부분적으로는 부조화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전체적인 색채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

3)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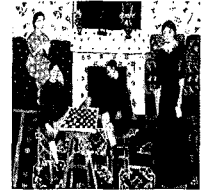
마티스 작품에서 선은 묘사적인 것과 장식적인 것으로 분류되었다⁷⁾. 마티스는 초기에 선의 절제, 모서리의 묘사, 세잔느 방식의 선을 사용하였고, 「까르멜리나」 <그림 12>에서는 형태에 유동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있었다⁸⁾.

야수파시기에 이르러 색채의 분배역할로 선을 사용하였는데 윤곽선과 테두리 묘사에 한정되었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작품은 임빠스트(impasto)기법을 채택하였고, 형태와 채색, 드로잉과 운동감 묘사 사이에서 교체를 이루는 듯하였다. 즉 선은 형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장식적인 선은 실험기(1909~1917) 동안에 발전되었고, 선 중심의 성격이 강한 데 특히 「춤」에서 현저하였다. 또한 마티스는 아라베스크 무늬의 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선과 색채 사이의 상호작용이 잘 정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아라베스크



<그림 14> 이집트풍의 커튼 앙리마티스, p.142



<그림 15> 화가의 가족 앙리마티스, p.76

무늬의 선은 「분홍빛 나무」 <그림 13>(1935), 「이집트풍의 커튼」 <그림 14>(1984) 등의 후기작에서 발전되었고, 아라베스크가 추상적인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성 안에서 조화를 이루었다.

또 다른 장식적인 선은 「화가의 가족」 <그림 15>, 「분홍빛 나무」에서처럼 명확한 무늬로 묘사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배열은 시각적으로 다양함의 효과를 주며 하나의 면을 한정하고자하는 경향도 띄게 되었다.

마티스는 선과 색채를 사용하여 공간을 구성하였고, 이는 채색과 드로잉의 관계에서 잘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은 그의 공간의 본질을 결정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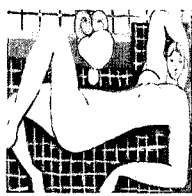
4) 공간

마티스는 초기작에서 드로잉(Drawing)과 채색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공간을 형성하였고, 19C말에 이르러 그리는(Draw) 동시에 채색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식탁」 <그림 16>(1897)에서 잘 나타내었다. 이 방식은 야수파 시기까지 계속되었으며 「마티스 부인」, 「푸른 나무」 <그림 17>(1907)에서 두드러졌으나 야수파 말엽에 이르러 드로잉과 채색은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붉은 색의 조화」, 「대화」 <그림 18>에서 드로잉은 더욱 고정적으로 되었다.

「금붕어와 조각」에서는 여러 요소들이 드로잉에 의해 형성되었고, 색채에 의해 공간의 평면화가 유지



<그림 12> 까르멜리나 앙리마티스, p.122



<그림 13> 분홍빛 나무 앙리마티스, p.203



<그림 16> 식탁 앙리마티스, p.136



<그림 17> 푸른 나무 서양현대 미술의 기원, p.46



<그림 18> 대화
앙리마티스, p.107



<그림 19> 왕의 비애
앙리마티스, p.151

된 반면 「푸른 창문」에서 형태는 다소 상이하게 묘사되었다. 이러한 모델링의 기법은 세잔느식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마티스의 공간은 세잔느의 공간을 자신의 조형언어로 새롭게 표현하였고, 이는 비실제적인 공간의 실제적인 부위(passage) 원리를 따랐다⁹⁾. 「금붕어와 조각」은 형태가 조형적 양식으로 그려진 반면 「푸른 창문」은 입체적이며 결과적으로 모호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1911년과 1917년 사이에 이 두 가지 공간을 사용하였는데 「마티스 부인」의 공간은 조밀하고 유동적인 총체(entity)로 이해되며 실제적인 공간을 묘사한 듯하였고, 배경조차도 무게와 실제성을 가졌다.

마티스는 「반스 변화-춤I」 이후에 더 비실제적이고 엄격한 공간의 묘사에 치중하게 되었고, 「분홍빛 나무」에서 보이듯이 기하적인 구조를 갖았다. 이들은 모두 뚜렷한 형태 묘사, 그리고 평면화된 색면으로 구성되었다. 「왕의 슬픔」 <그림 19> 같은 후기작은 공간이 변형된 형태로서 절정을 이루었고, 원근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색채와 볼륨의 대조가 채색의 기법을 통해서 표현되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채색된 종이를 자름으로서 채색과 드로잉이 결합되는 기법을 발전시켰고, 드로잉과 채색을 동시에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었다¹⁰⁾.

이상으로 채색과 드로잉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마티스 회화의 공간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았다.

III. 포비즘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1.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

1) 아트 메이크업

아트 메이크업(Art Make-up)은 화장(化粧), 분장(扮裝)의 영어명인 메이크업(Make-up)의 하위개념으

로서 메이크업 분야중의 한 분야이다. 메이크업이라는 개념은 ‘만들다’는 동사인 ‘make’와 ‘위쪽, 높은 곳으로’라는 부사 ‘up’의 합성어로서 “만들어서 상승 효과를 주게 한다”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¹¹⁾.

아트 메이크업이란 메이크업아티스트가 인간의 육체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현하는 메이크업 영역이다. 또한 예술성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으로 표현상의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는 실험적인 조형예술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¹²⁾. 아트 메이크업은 트렌드에 영향을 받는 퍼스널 메이크업과는 달리 어떤 테마나 주제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2)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은 원래 삽화(插畵) 또는 이야기를 해설하는 그림으로서의 회화(繪)이다. 중세 서체의 수사본(手寫本)에서 일루미네이션(Illuminations)은 일러스트레이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루미네이션은 색슨어족의 lim-limm(그림을 그린다)와 프랑스어의 luminer(비추다, 광채를 부여한다)의 절충어이다. 여기에 대하여 일러스트레이션은 ‘빛을 부여한다’ 혹은 ‘빛’의 의미인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이다¹³⁾. 따라서 Lumination은 빛이 주는 돋보이게 하는 그림, 설명을 위한 그림, 장식을 위한 그림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일러스트레이션이 단지 언어로 추사된 것을 그림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기호에 또 다른 기호를 옮겨놓음으로써 의미의 사슬을 확장시키는 작업이라는 뜻이다. 또 ‘To make light’로 보이지 않는 대상에 빛을 비추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즉 감정이나 사상을 시각화하여 대중을 통하여 명철하게 해명한다는 의미로 보기도 한다¹⁴⁾.

일러스트레이션은 대중을 설득하고, 인식하게 하고, 알리는 전달 수단으로, 형식에 있어서는 회화와 디자인의 중간영역이고, 목적에 있어서는 대중 설득과 미적 감동의 유발이라는 이중적 목적을 가지며, 기능에 있어서는 형태와 색채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며,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장르이다¹⁵⁾. 일러스트레이션은 회화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작품성 그리고 디자인이 가지는 대중성과 사회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미적인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모두 충족시키는 독자적인 장르이다¹⁶⁾.

2. 소비즘을 이용한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제작

1)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

현대사회가 다양화, 개성화됨에 따라 예술 표현 양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패션, 광고, 방송, 연극, 이벤트 산업, 무대예술, 공연예술 등 여러 분야의 아트메이크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또 다른 표현 방법인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도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창조적인 디자인 개발의 한 방법으로서 조형예술의 한 분야인 회화를 모티브로 도입하여 좀 더 개성있고, 독창적인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을 구상하도록 하였다. 특히 '색채의 해방'이라는 결실을 맺게한 마티스의 회화 작품을 응용하여 색채의 강렬함과 조형적 특성을 모티브로 하여 창조적인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을 디자인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즘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마티스의 회화 작품을 연구하여 조형적 특성과 색채표현의 형식을 규명하고, 이것이 예술적 가치를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집목시켜 주변 예술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그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작품제작은 '삶의 기쁨', '푸른 창문', '창문(수선화가 있는 실내)', '붉은색의 조화'를 모티브로 하여 색채와 조형적 특성을 변형, 생략, 재해석함으로써 디자인을 전개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2) 작품 및 해설

(1) 작품 I

① 작품의 모티브 : 생의 기쁨, 1906



② 작품 해설

작품의 모티브는 파라다이스로 <사치, 고요, 관능>과 같은 주제를 그렸으며 선, 면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소재는 상상된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나무, 대지, 사람을 형상화하여 기하학적으로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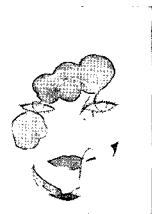
<표 1> '삶의기쁨' 작품 분석 및 재구성

구분	작품 분석	모티브의 재구성	
소재	상상된 이미지 누드와 식물형태	상상된 이미지 사람의 형상을 원형으로 재구성	
색채	주조색	Y/V	Y/V
	보조색	R/V, R/P, GY/V, G/B	R/V, R/P, R/VP, GY/V, G/B
	강조색	PB/V, YR/S	PB/V, YR/S
선	유동적·장식적인 선	유동적·부드러운 선	
공간	새로운 드로잉과 채색의 기법	사람·나무·대지의 추상적 표현	

현하였다. 색채는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여 주조색은 Y/V계열, 보조색은 R/V, R/P, GY/V, G/B, 강조색은 PB/V, YR/S를 사용하였다. 유동적이며 장식적인 선의 느낌을 사용하였고, 공간은 새로운 드로잉과 채색의 기법으로 회화를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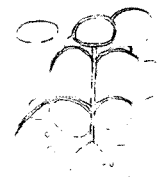
모티브를 재구성한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소재는 상상된 이미지로서 사람의 형상을 원형으로 재구성하였고, 색채는 모티브와 거의 같이 사용되었으며 유동적인 부드러운 선의 느낌을 사용하였고, 공간은 사람·나무·대지의 표현을 추상적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드로잉 하여 간결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이 작품은 아크릴 물감의 유희적인 느낌과 강렬한 원색의 사용으로 인하여 아트적인 느낌이 들도록 재구성하였다.

③ 모티브를 재구성한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2) 작품 II

① 작품의 모티브 : 푸른 창문, 1913



<표 2> '푸른 창문' 작품 분석 및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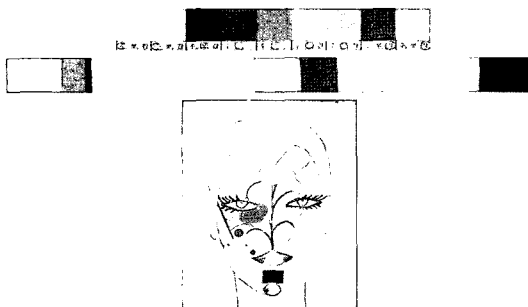
구분	작품 분석		모티브의 재구성
소재	상상된 이미지 실내 공간		상상된 이미지 푸른 나무와 전등 형 상화
색채	주조색	PB/Vp	N9.5, PB/Vp
	보조색	PB/V, B/B, YR/ V, PB/P	PB/V, B/B, YR/V, PB/P, GY/V
	강조색	R/V, Y/V	R/V, Y/V
선	유동적 · 장식적 인 선		유동적 · 부드러운 선 직선의 간결함
공간	선적 · 면적인 요 소 부각		색채로 선 묘사

② 작품 해설

소재는 상상된 이미지, 장르별 소재는 실내 공간으로 이를 통해 외부와 연결되었다. 색채는 배경색에 의해 내부와 외부가 결합되어 있어 색에 의한 공간을 구성하였고, 단일색에 의해 형태들이 연결되었으며, 색조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채색이 비중있게 사용되어 색채의 불륨이 단계적 변화에 따라서 형태를 만들고, 명암 대신 밝은 색면으로 비실제적인 광선을 암시하였다. 주조색은 PB/Vp, 보조색은 PB/V, B/B, YR/V, PB/P, 강조색은 R/V, Y/V를 사용하였다. 유동적이며 장식적인 느낌의 선을 사용하였고, 입체적이며 모호한 공간을 만들어 형태적인 면으로 볼 때 선적인 요소와 면적인 원의 요소를 부각시켜 이를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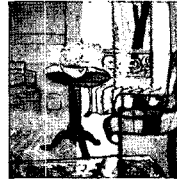
모티브를 재구성한 아트 일러스트레이션의 소재는 상상된 이미지로서 푸른 나무와 전등을 형상화하여 표현하였고, 색채는 주조색이 N9.5, PB/Vp, 보조색이 PB/V, B/B, YR/V, PB/P, 강조색은 R/V, Y/V를 사용하였으며 공간은 푸른 나무와 전등을 형상화하여 채색과 동시에 드로잉 하여 색채로서 선을 묘사하였다. 또한 도구의 사용은 광택이 있는 블루 파우더, 마카펜,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감각적으로 재구성하였다.

③ 모티브를 재구성한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3) 작품 III

① 작품의 모티브 : 창문



② 작품 해설

작품의 모티브는 실내를 그린 것으로 소재는 사실적 이미지, 장르별 소재는 실내공간으로서 실내와 외부가 창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색채는 추상적이고 새로운 방식과 전통적인 광선의 묘사로 표현되었는데 실제의 광선과 명암의 표현과 함께 밝은 색면으로 비실제적인 광선을 암시하였다. 유사색에 의해 외부와 내부의 형태가 연결되었고, 색조에 따른 전체적인 분위기를 구성하였다. 주조색은 BG/L, 보조색은 GY/S, GY/B, G/P, 강조색은 YR/DI, N1.5를 사용하였고, 선은 계속 반복되는 문양으로 울동감을 주었고, 유동적 장식적인 선과 직선이 주는 간결함을 느낄 수 있었다. 색채에 의한 공간의 평면화로서 형태가 조형적으로 묘사되지 않았으나 입체적이며 모호한 공간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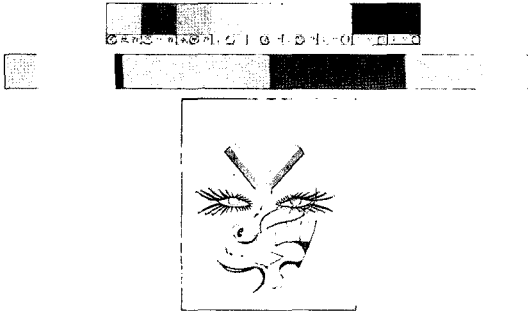
모티브를 재구성한 아트 일러스트레이션의 소재는 의자에서 느껴지는 기하학적인 형태와 카페트에서 느껴지는 직선적이고 간결함, 반복되는 패턴의 울동감, 창틀의 자유곡선의 자유로움을 상상된 이미지로 재구성하였다. 색채는 주조색이 GY/V, G/V, 보조색이 GY/S, GY/B, G/P, Y/VP, 강조색은 Y/V, R/V, N1.5를 사용하였다. 선은 반복되는 문양의 사용으로 울동감을 느낄 수 있었고, 장식적인 선의 느낌을 사

<표 3> '창문' 작품 분석 및 재구성

구분	작품 분석		모티브의 재구성
소재	사실적 이미지 실내 공간		상상된 이미지 의자, 카페트, 창틀을 재구성
색채	주조색	BG/L	GY/V, G/V
	보조색	GY/S, GY/B, G/P	GY/S, GY/B, G/P, Y/VP
	강조색	YR/DI, N1.5	Y/V, R/V, N1.5
선	유동적 · 장식적 인 선		반복되는 선 장식적 선
공간	색채에 의한 공 간의 평면화		추상적이며 간결한 느낌의 공간 사용

용하여 유동적인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하였다. 공간은 의자, 카펫, 창틀의 표현은 추상적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드로잉하여 간결한 느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 작품은 골드 파우더와 실버 구슬, 아크릴 물감, 색연필 등을 사용하여 재구성 하였다.

③ 모티브를 재구성한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4) 작품 IV

① 작품의 모티브 : 붉은색의 조화, 1908



② 작품 해설

작품의 모티브의 소재는 형태가 기하적인 성격이나 방 내부의 표현이 실제적인 사실적 이미지, 장르별 소재는 실내 공간으로 실내와 외부가 창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색채는 식탁과 벽면의 경우 단일색에 의해 형태들이 연결되었고, 색조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창문을 기준으로 외부와 내부는 보색 병치를 이루어 부분적으로 부조화 효과를 내지만 전체적인 색채는 조화되었다. 전체적으로 그린계열과 레드계열의 보색 대비로 인하여 강렬한 느낌을 주었고, 보색의 영향으로 색상이 선명하게 보였다. 색채를 살펴보면 주조색은 R/V, 보조색은 G/V, PB/V, 강조색은 Y/V, N1.5를 사용하였다. 선은 유선적이고 장식적으로 사용하였고, 반복되는 아라베스크 문양을 통하여 부드러움과 율동감을 주었으며 공간은 드로잉과 채색의 처리가 분리되어 드로잉이 더욱 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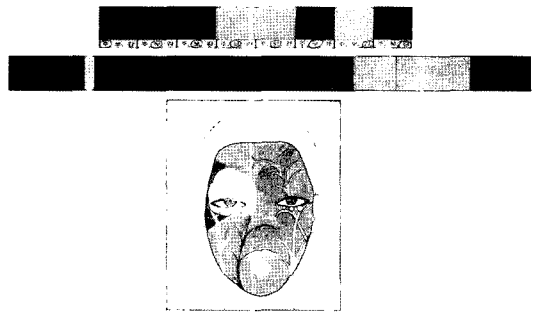
모티브를 재구성한 아트 일러스트레이션의 소재는 상상된 이미지로서 식탁보와 벽의 문양을 소재로 사용하여 식물의 형태(아라베스크)를 형상화하여 표현하였다. 색채는 주조색이 R/V, 보조색이 G/V, PB/V,

<표 4> '붉은색의 조화' 작품 분석 및 재구성

구분	작품 분석	모티브의 재구성	
소재	사실적 이미지 실내 공간	상상된 이미지 식탁보와 벽의 문양	
색채	주조색	BG/L R/V	R/V
	보조색	G/V, PB/V	G/V, PB/V, PB/P, P/P, YR/DI
	강조색	Y/V, N1.5	Y/V, N1.5
선	유동적·장식적인 아라베스크	반복되는 선 장식적 선	
공간	드로잉과 채색의 처리 분리	추상적이며 간결한 느낌의 공간 사용	

PB/P, P/P, YR/D, 강조색은 Y/V, N1.5를 사용하였고, 선은 반복되는 문양의 사용으로 율동감을 주었고, 부드럽고 장식적인 선의 느낌을 사용하였다. 공간은 식탁보와 벽 문양의 표현은 추상적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드로잉하여 간결한 느낌을 주었다. 도구의 사용은 아크릴 물감, 색연필, 마카펜 등을 사용하여 재구성 하였다.

③ 모티브를 재구성한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IV. 결 론

현대의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독창성과 자율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예술 표현 방식으로서 표현 기법, 소재, 조형예술의 특성을 모티브로 하여 발전하고 있다. 특히 조형예술의 한 분야인 마티스(Henri Matisse) 회화 작품을 응용하여 색채의 강렬함과 조형적 특징을 모티브로 응용하여 창조적인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을 디자인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포비즘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마티스의 회화 작품을 연구하여 조형적 특성과 색채표현의 형식을 규명하고, 이것의 예술적 가치를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접목시켜 여러 주변

예술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그 의의를 갖는데 있다.

마티스의 작품은 마티스 회화의 조형적 특성을 소재, 선, 색채, 공간으로 분류하여 소재로는 상상적인 이미지와 실재적 이미지로 나뉘었다. 선은 묘사적인 선과 장식적인 선으로 초기작에서는 공간의 분류만 나타내는 것에 비해 후기에는 장식적인 아라베스크 문양, 격자문양 등의 사용이 보였고, 색채는 원색의 색상을 사용하여 강렬하였다.

야수파의 성격이 가장 잘 들어나는 네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을 하여 얻은 결론은 마티스 작품의 색채가 R/V, G/V, B/V, Y/V 등 원색이기 때문에 보색대비를 통한 강렬한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이 가능하였고, 디자인에도 응용될 수 있다. 마티스의 작품을 응용하여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디자인을 전개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아트적인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 회화 작가의 작품을 모티브로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전개하여 좀 더 폭넓고 감각적인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자끄라센느, 이희숙 역(1996). 앙리마티스, 열화당, pp.43-138.
- 2) Peter and Linda Murray (1965). A Dictionary of art and artists (Baltimore : Pengnin), p.104.
- 3) Leon Degand (1956). "Pour une revision Valeurs" "Matisse, un genie?" Aujourd'huiet Architecture, 2nd Years No.10, p.28.
- 4) Alfred, H. and Barr, H. (1986). Cubism and Abstract Art (New York : The Museum of Modern Art), p.551.
동등가라는 개념은 마티스 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 수라 슈타인(Sarah Stein)은 마티스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한 적이 있다고 회고하였다. "여러분은 모델이나 다른 소재를 묘사하고자 할 때 그것을 묘사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것과 여러분의 그림사이에는 색채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 5) 김영나(1996). 서양 현대 미술의 기원(1880~1914), 시공사, pp.136-147.
- 6) 책 플랩, 이영주 역(2005). 세기의 우정과 경쟁 : 마티스와 피카소, 예경, p.83.
- 7) Alfred, H. and Barr, H. (1986). '앞의 책', p.302.
- 8) Alfred, H. and Barr, H. (1986). '앞의 책', p.311.
- 9) Mervyn Levy(ed.) (1961). The Pocket Dictionary of Art Terms, (Greenwich, Connecticut : New York Graphic society), p.54.
- 10) 존 홀마크 내프(1987). "마티스, 그의 마지막 기법", 계간미술 No.6, pp.56-60.
- 11) 강대영(2002). 한국분장예술, 지인당, p.8.
- 12) 최지나(2000). 꽃 이미지의 아트 메이크업, 인체예술학회지, 1, p.148.
- 13) 명승수(1986). 현대디자인학의 지평, 디자인 하우스, p.56.
- 14) 정혜선(1992). Fashion Illustration, 교학연구사, p.10.
- 15) 공미선(2002). Fashion illustration drawing technics, 교학연구사, p.11.
- 16) 김남희(2002). 피카소의 색채를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2.